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경로행동 연구

-조부모가 생존한 예비보육교사 중심으로-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ward the Elders

-Focus on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who have living Grandparents-

고은교*, 신수경**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부대학교 유아교육과**

Eun-kyo Ko(silver2419@nambu.ac.kr)*, Su-kyung Shin(sskdds@nambu.ac.kr)**

요약

본 연구는 유아의 인성발달 증진과 노인소외현상 감소를 위한 교육적·사회복지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예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대상자로는 G시와 J도에 소재하는 4개 대학교의 보육교사과정 이수자인 여학생 176명이다. 연구 도구로 사용된 예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 측정 도구로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근거하여 새롭게 변형한 모형에 맞춰 구성된 선행연구[1][2]에서 사용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설계 내용으로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의도, 행동 등 계획된 행동이론의 모형에 태도적 신념, 규범적 신념, 통제적 신념 등 현충신념을 포함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외생변수와 내생변수 간에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가설은 지지되었다. 이로써 본 이론의 유용성이 재 입증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유아의 인성발달이라는 교육적 측면과 노인소외현상 감소라는 복지적 측면에서 노력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계획된 행동이론 | 경로행동 | 예비보육교사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influencing path behaviors of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to present the educational and social welfare measures for promoting children's character development and preventing the alienation of the elderly. The subjects for this study are 176 students who completed the childcare teacher course in four universities located in G city and J province. The scale of this study utilized modified, supplemented scale used in previous studies[1][2] that was constituted for a newly transformed model based on planned behavior theories. The contents of research design include salience beliefs such as attitude beliefs, normative beliefs, control beliefs, etc. as well as a model of planned behavior theories such as attitudes,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 control, behavior intention, behavior, etc. This study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for the data collected by using the SPSS 18.0 for Windows. From the results of verification, all hypothesis was supported. Thus, usefulness of this theory was reconfirmed,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o be utilized as basic materials for professionals who make every endeavor in a perspective of children's character development and in a perspective of reducing alienation phenomenon of the elderly.

■ keyword : | Theory of Planned Behavior | Behavior Toward the Elder | Pre-service Childcare Teacher |

I.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면서 2009년에는 '유아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이어 2011년에는 교육기술과학부로부터 '누리과정'이 고지되었다. 이는 '창의적 인성', '창의·인성교육'이라는 용어를 등장시키며 유아의 창의성 계발이 유아교육의 핵심임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누리과정'에서는 '만 5세 아의 기본생활 습관과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준다.'는 전체 하에 '만 5세 아에게 필요한 기본능력과 바른 인성을 기르고,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09) 역시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와 창의·인성 함양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과정 내용을 구체화하여 교과서 및 교수법 개선에 관한 방안을 제시[3]하는 등 인성교육이 유아교육의 근간이 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성은 생득적인 것으로 생애초기에 형성되며[4], 서서히 형성된 사람의 성품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발달의 다양한 영역 중 그 어떤 영역보다도 인성발달영역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유아기가 인성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라는 여러 학자들[5-7]의 주장은 인성발달을 위한 교육적 개입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인성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유아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서 최초의 타인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있다. 근래에는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증가에 따라 유아들이 어린이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가는 추세로 양육의 기능이 부모로부터 보육교사에게 옮겨져 가고, 부모와 사회의 보육교사에 대한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유아의 올바른 도덕성과 인간적인 덕성함양에 관한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관계성 및 사회성을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인성적 가치[8]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분만(2015)은 인성교육을 인격의 고유한 특성인 개인차원의 주체성, 관계차원의 공동체성, 영적차원의 존엄성이라는 세 차원의 특성이 통합적으로 발달되어야 한다[9]고 하였으며, 현대적 의미로는 인성교육을 도덕교육과 사회정서교육이 통합된 것[10]이

라 보고, 인성교육이 도덕교육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가진 정서행동문제나 부적응 문제 등을 예방하는 사회·정서적 발달영역이 교육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박현진과 김숙자(2012)는 인성교육 내용의 '가치' 측면을 각 민족들과 국가들이 그들의 오랜 전통을 통해 지켜내고자 하는 지향점으로 밝히고[17], 서양사상과의 비교를 통하여 고유한 한국적 효사상이 바로 사회적 실천의 가치[11]라고 하였다. 효사상은 한국적 가치와 복지사상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족 및 노인복지 주체를 사회적 책임으로 두어야한다는 가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두 세대를 아우르면서 조화를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노인에 대한 존경의 태도를 포함한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효복지라 정의하고, 상호호혜성의 원칙을[12] 강조하고 있다.

과거 한국의 노인은 가부장제도 아래 확대가족의 어른으로서 권위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세대와 함께 더불어 살았다. 그러나 산업사회 이후 가족 구조가 핵가족화 되면서 젊은 세대는 노인을 단지 부양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데 이는 나이에 대한 편견이나 노화에 대한 몰이해와 같은 젊은 세대의 노인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13]. 이와 같은 이유로 현대의 노인은 과거의 권위적인 역할을 잃은 채 좁게는 가족으로부터 넓게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OECD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10]이다. 노인소외현상을 McLean 외(2008)는 이탈이론(theory of disengagement)에 근거하여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사회적 상호작용을 회피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노인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수용해야 한다[15]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노인은 결코 스스로 사회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진세월의 회한, 절망적이며 처량한 신세, 무가치한 삶, 참을 수 없는 통증과 무력감, 의지할 것 없는 고독으로 인한[16] 타인으로부터 소외되는 감정(a feeling of exclusion)을 느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회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될 뿐[17]이기에 동양의 미풍양속이자 다양한 세대 간의 긍정적 정서를 담보할 수 있는 경로효친사상에 포함된 경로행동 중

진을 통한 미시적 수준에서의 노력[18]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양철학 및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유아를 위한 인성교육 내용의 초점을 경로사상에 맞춰 유아의 인성발달이라는 교육적 측면과 더불어 노인소외문제를 미시적·중간적 수준에서의 사회복지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인성교육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는 교수-학습방법은 Lickona(1997)가 제안한 지침이다. Lickona는 교실 안과 교실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12가지 상호지원 전략을 ‘인성교육의 순환도’를 통하여 소개하며, 도덕적 영향력을 지닌 교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온정적인 배려자로서의 역할로 학생을 도덕적 방식으로 대우하고 존엄한 존재로 대우하는 것이다. 둘째는 도덕적 모델로서의 역할이며, 셋째는 윤리적 스승으로서의 역할로 칭찬과 바로잡음이 도덕적 환류과정을 통해 제시되는 것이다[19]. 이는 보육교사는 유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델링이라는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을 재차 확인 하는 것이며, 유아발달을 유아와 환경과의 상호작용 결과가 내면화 되는 과정이므로 비계설정자로서의 교사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Vygotsky(1978)의 사회문화이론과 맥을 같이한다. 한편 Klausmeir와 Ripple(1971)에 의하면 노인에 대한 태도와 고정관념은 일찍부터 발달하여 이후 삶에서 그들의 행동에 상당히 안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0-22]. 또한 사회문화는 노인의 연령을 어떻게 인지하고, 노인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하고[23][24], 노인에 대한 인식과 편견 역시 아동기에 형성되기 시작하기에 세대 간의 인지적 차이는 생물학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의 구축[25]과 노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은 유아기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많은 선행연구들은 인성교육의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핵심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교사가 촉진자, 조력자, 참된 교육자, 지도자로서 학생들에게 본이 되게끔 모델링 역할을 해야 함은 물론 무엇보다도 인성교육에 관한 교사 자신의 관심 및 실천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함을 피력하였다[26-32].

따라서 미래에 보육교사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예비

보육교사의 경로행동은 유아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 및 행동을 학습하게 하는 긍정적인 영향 요인이기에 향후 이들과 함께 살아갈 노인의 정서적 안녕은 물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교사 개인은 학생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전통적인 도덕적 진리는 물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경청하는 존중의 태도와 같은 인류 보편적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훈련될 필요[7][19]가 있으며, 이를 통해 유아기의 학습은 옳고 그름에 대한 자기 자신의 반성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습관처럼 익숙해질 수 있는 태도로 완성시켜져야만 한다. 따라서 예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에 대한 모델링을 통한 유아의 경로행동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은 충분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경로행동을 통한 노인소외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로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비의지적 행동을 예측 할 경우 합리적 행동이론에 지각된 행동통제 요인이 추가된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였을 때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고 여러 선행연구들[1][33-35]은 보고하고 있다. Ajzen(1988)에 의해 개발된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은 인간행동을 온전한 자의적 조절에 의하여 나타난다는 합리적 행동이론의 가정을 비현실적인 가정으로 보고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지각된 행동통제 요인을 추가하여 행동예측 범위를 의지적인 행동으로까지 이론의 폭을 확장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론이다[36]. 여기서 추가된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특정행동 수행이 어렵거나 혹은 쉽다는 개인의 지각을 의미하며, 이는 촉진조건, 자기성취를 포함한 통제신념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 계획된 행동이론의 제 요인 중 행동에 대한 태도는 특정행동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의미하며, 이는 특정행동에 따른 보상체계나 수행의 어려움에 대한 지각인 개인적 상대이익, 사회적 상대이익, 복잡성을 포함한 태도적 신념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주관적 규범은 특정 행동 수행여부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사회규범, 즉

타인이 자신의 행동을 지지 혹은 반대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의미하며, 이는 내적 규범적 신념 및 외적 규범적 신념을 포함한 규범적 신념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 즉 계획된 행동이론의 3요인은 어떤 행동의 예측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주관적 개인성을 의미하는 현출신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37].

계획된 행동이론은 행동의도와 행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인간의 일반적인 행동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모형[38]나 특정행동인 경로행동의 변화를 좀 더 정확히 예측하기 위하여 Ajzen(1991)이 제안한 현출신념을 외생변수로 포함한 새로운 모형을 적용한 연구[1][2]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동[1]이나 성인[2]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로 유아의 경로행동을 증진하고자 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태도나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의 상대적 중요성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의도 예측 값이 변화[38]하기에, 예비보육교사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새롭게 구성된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을 적용하여 경로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유아의 모델링이 되는 예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더불어 통합적인 요인으로 구성된 계획된 행동이론을 근거하여 예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에 대한 제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계획된 행동이론이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규명하기에 매우 유용한 이론임을 재 입증할 것이다. 따라서 유아가 경로행동을 학습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예비보육교사의 자발적인 경로행동을 유도하여 그들로부터 학습되는 유아가 미래에 핵심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바탕으로 한 바른 인성을 갖추어 노인소의 현상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노력하는 교육 분야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예비보육교사의 현출적 신념이 경로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예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경로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예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의도가 경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G시와 J도에 소재하는 4개 대학교의 보육교사과정 이수자 중 설문응답 참여에 동의한 24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조부모가 생존해 있는 여학생 18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친족관계인 조부모가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요인임을 보고한 선행연구[39][40]를 근거하여 예비보육교사 역시 조부모가 생존하지 않는 경우보다 생존한 경우가 노인에 대한 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로행동 조사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표본추출방법은 임의추출법을 활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도구로 사용된 예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 측정 도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근거하여 새롭게 변형한 모형에 맞춰 구성된 선행연구[1][2]에서 사용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항목 및 외생변수인 태도적 신념, 규범적 신념, 통제신념 등 3개의 현출신념, 내생변수인 태도, 주관적 신념, 지각된 행동 통제, 행동의도, 경로행동 등 8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항목 3문항을 비롯하여 개인적 상대이익 6문항, 사회적 상대이익 6문항, 복잡성 6문항 등을 포함한 태도적 신념은 18문항, 내적 규범적 신념 6문항, 외적 규범적 신념 6문항을 포함한 규범적 신념은 12문항, 촉진조건 6문항, 자기성취 6문항을 포함한 통제신념은 12문항, 태도 6문항, 주관적 신념 6문항, 지각된 행동 통제 6문항, 행동의도 6문항, 경로행동 6문항 등 총 75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변수의 측정은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 '보통이다'를 3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형식의 등간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항목 중 태도적 신념의 하위요인인 복잡성을 제외한 항목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이 높을수록 해당요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낸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항목 3문항은 명목척도를 사용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인 설문지는 계획된 행동이론 연구자 1명, 국어국문학 전공 교수 1명, 교육학 전공 교수 1명의 검증을 통하여 확정함으로써 측정 변인에 대한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확정된 측정문항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 대상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6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본 연구자에게 본 연구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받은 석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 4명이 각 대학교의 교과담당교수의 협조 아래 설문 참여에 동의한 예비보육교사 247명에게 설문지를 배부·자가 기입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2015년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일 동안 설문을 실시하여 회수한 설문지 247부 중 조부모가 생존해 있는 182명의 자료를 분리하여 설문응답에 일관성이 없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분석 자료로 부적합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한 176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4. 자료의 수집과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예비보육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의 적합성을 알아보았다. 넷째, 가설검증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5.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모형을 적용하여 예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에 대한 태도적 신념, 규범적 신념,

통제신념을 포함한 외생변수인 현출신념 및 내생변수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의도, 경로행동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로서 다음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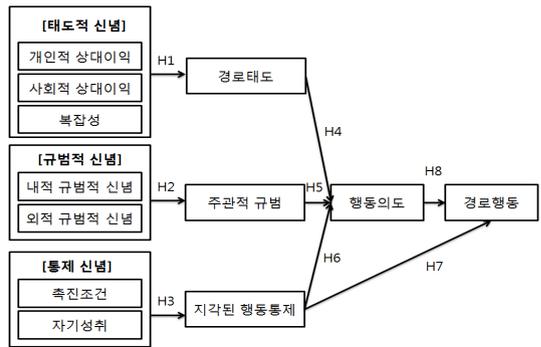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위와 같은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H1. 경로행동에 관한 태도적 신념은 경로태도에 정(+) 또는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경로행동에 관한 규범적 신념은 주관적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경로행동에 관한 통제적 신념은 지각된 행동통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경로행동에 관한 태도는 경로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 경로행동에 관한 주관적 규범은 경로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6. 경로행동에 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경로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7. 경로행동에 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경로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8. 경로행동의도는 경로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년은 1학년 50명(28.4%), 2학년 40명(22.7%), 3학년 46명(26.1%), 4학년 40명(22.7%)이고, 조부모와의 동거유무에서 동거는 72명(40.9%), 비동거 104명(59.1%)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결과

구분	항목	n	%
학년	1학년	50	28.4
	2학년	40	22.7
	3학년	46	26.1
	4학년	40	22.7
	합계	176	100.0
조부모 동거여부	동거	72	40.9
	비동거	104	59.1
	합계	176	100.0

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본 연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Cronbach Alpha 분석을 실시하여 .600이상을 적용하였다. 또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 기법을 활용하였다.

2.1 내생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내생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 지각된 행동통제 .948, 주관적 규범 .948, 태도 .934, 행동의도 .963, 경로행동 .904로 모두 신뢰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타당도를 검증 결과 30문항이 5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내생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결과

구분	행동통제	주관적규범	태도	행동의도	행동	공통성	신뢰계수
지각된 행동통제5	.876	.070	.194	.287	.076	.899	.948
지각된 행동통제4	.857	.148	.184	.133	.114	.821	
지각된 행동통제2	.844	.197	.109	.126	.223	.829	
지각된 행동통제3	.824	.106	.177	.342	.167	.866	
지각된 행동통제1	.785	.123	.220	.282	.213	.805	
주관적 규범2	.638	.130	.199	.235	.387	.668	.948
주관적 규범5	.057	.855	.236	.214	.191	.873	
주관적 규범1	.129	.831	.314	.210	.142	.869	
주관적 규범6	.152	.830	.209	.163	.274	.857	
주관적 규범3	.181	.789	.167	.214	.228	.781	
주관적 규범4	.048	.776	.250	.292	.150	.775	.934
태도2	.298	.694	.288	.149	.179	.707	
태도5	.180	.292	.814	.182	.184	.848	
태도4	.233	.278	.814	.236	.131	.866	
태도1	.282	.221	.814	.161	.163	.842	
태도3	.193	.186	.733	.158	.264	.704	
행동의도5	.075	.303	.662	.235	.271	.665	.963
행동의도3	.174	.320	.643	.291	.282	.710	
행동의도6	.290	.234	.216	.818	.199	.894	
행동의도2	.248	.260	.206	.796	.215	.852	
행동의도1	.318	.222	.203	.750	.302	.846	
행동의도4	.309	.376	.305	.704	.226	.877	.904
경로행동1	.390	.305	.219	.669	.316	.841	
경로행동6	.314	.310	.344	.649	.221	.784	
경로행동5	.121	.231	.142	.107	.785	.715	
경로행동3	.105	.175	.147	.222	.759	.689	
경로행동2	.255	.179	.228	.171	.759	.754	
경로행동4	.124	.181	.170	.298	.727	.695	
고유값	.260	.191	.245	.206	.712	.714	KMO=.924(p=.000), 자유도=435, 근사카이제곱 =5774.716
분산	.372	.165	.425	.062	.570	.675	
누적분산	5.229	5.081	4.704	4.372	4.336		
	17.428	16.936	15.679	14.572	14.453		
	17.428	34.364	50.043	64.615	79.068		

2.2 외생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외생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 개인적 상대이익 .972, 내적 규범적 신념 .953, 외적 규범적 신념 .960, 복잡성 .934, 사회적 상대이익 .963, 촉진조건 .892, 자기성취 .897로 모두 신뢰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2문항에서 자기성취 4번과 5번 문항, 촉진조건 1번과 6번 문항을 제거한 상태에서 7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3. 가설검증

연구모형에 따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1. ‘경로행동에 관한 태도적 신념은 태도에 정(+) 또는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사회적 상대이익(p=.000)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설이

표 3. 외생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결과

구분	개인적 상대이익	내적규범적신념	외적규범적신념	복잡성	사회적 상대이익	촉진 조건	자기 성취	공통성	신뢰 계수
개인적 상대이익6	.941	.022	.051	.017	.087	.124	.090	.919	.972
개인적 상대이익5	.937	.079	.085	.060	.133	.117	.062	.929	
개인적 상대이익4	.933	.104	.089	.008	.154	.038	.042	.917	
개인적 상대이익3	.923	.123	.121	.028	.098	.100	.084	.909	
개인적 상대이익2	.916	.089	.147	.020	.112	.087	.080	.896	
개인적 상대이익1	.793	.152	.178	.029	.136	.052	.035	.708	.953
내적 규범적 신념5	.116	.816	.240	-.184	.296	.149	.096	.889	
내적 규범적 신념4	.125	.814	.294	-.174	.255	.085	.114	.880	
내적 규범적 신념3	.075	.781	.158	-.124	.289	.086	.238	.804	
내적 규범적 신념6	.117	.760	.243	-.189	.331	.102	.176	.838	
내적 규범적 신념2	.105	.752	.221	-.173	.329	.187	.159	.823	
내적 규범적 신념1	.188	.653	.292	-.166	.267	.088	.190	.690	.960
외적 규범적 신념5	.179	.202	.848	-.123	.207	.156	.114	.886	
외적 규범적 신념1	.107	.270	.841	-.118	.220	.122	.168	.897	
외적 규범적 신념4	.074	.296	.812	-.116	.140	.107	.092	.806	
외적 규범적 신념2	.114	.307	.795	-.149	.282	.142	.054	.864	
외적 규범적 신념3	.177	.097	.790	-.102	.367	.113	.243	.882	
외적 규범적 신념6	.188	.177	.782	-.151	.195	.126	.210	.799	.934
복잡성5	.077	-.202	-.100	.912	-.119	-.056	.026	.907	
복잡성6	.044	-.123	-.127	.903	-.169	.032	.021	.880	
복잡성4	.063	-.188	-.146	.900	-.130	.003	.070	.893	
복잡성2	-.016	-.138	-.050	.872	-.050	-.099	-.100	.805	
복잡성3	.101	-.060	-.116	.855	-.186	-.130	-.056	.813	
복잡성1	-.122	-.034	-.087	.660	.040	-.040	-.385	.611	.963
사회적 상대이익3	.186	.326	.220	-.165	.794	.144	.110	.879	
사회적 상대이익4	.195	.336	.304	-.102	.773	.122	.102	.876	
사회적 상대이익2	.172	.335	.251	-.151	.752	.132	.169	.840	
사회적 상대이익5	.199	.338	.287	-.154	.746	.103	.105	.838	
사회적 상대이익6	.128	.335	.305	-.204	.743	.126	.157	.857	
사회적 상대이익1	.207	.388	.291	-.131	.670	.136	.182	.795	.892
촉진조건5	.187	.124	.199	-.048	.098	.890	.159	.919	
촉진조건4	.152	.131	.153	-.075	.160	.882	.126	.888	
촉진조건3	.143	.337	.292	-.166	.238	.546	.373	.741	
촉진조건2	.186	.371	.207	-.157	.315	.530	.402	.781	
자기성취1	.115	.189	.194	-.030	.132	.150	.850	.850	
자기성취2	.093	.437	.267	-.071	.225	.240	.638	.791	.897
자기성취5	.137	.350	.331	-.114	.285	.267	.573	.745	
자기성취3	.125	.411	.309	-.114	.270	.262	.531	.716	
고유값	5.584	5.532	5.443	4.897	4.840	2.739	2.723	KMO=.927(p=.000), 자유도=703, 근사카이제곱=8018.723	
분산	14.696	14.559	14.322	12.888	12.737	7.207	7.166		
누적분산	14.696	29.255	43.577	56.465	69.201	76.409	83.575		

부분 채택되었다. $F=41.758$ 이고, $\hat{R}^2=.411$ 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태도적 신념($B=.529$)은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가설2. '경로행동에 관한 규범적 신념은 주관적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내적 규범적 신념($p=.001$)과 외적 규범적 신념($p=.000$)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F=105.406$ 이고, $\hat{R}^2=.544$ 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내적 규범적 신념($B=.220$) 및 외적 규범적 신념($B=.533$)은 주관적 신념에 대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가설3. '경로행동에 관한 통제신념은 지각된 행동통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자기성취($p=.000$)과 촉진조건($p=.039$)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F=44.500$ 이고, $\hat{R}^2=.332$ 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자기성취($B=.428$) 및 촉진조건($B=.135$)은 지각된 행동통제에 대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가설4. '경로행동에 관한 태도는 경로행동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태도($p=.00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F=39.046$ 이고, $\hat{R}^2=.434$ 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자기성취($B=.428$) 및 촉진조건($B=.135$)은 지각된 행동통제에 대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가설5. '경로행동에 관한 주관적 규범은 경로행동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주관적 규범($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F=37.849$ 이고, $\hat{R}^2=.420$ 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주관적 규범($B=.671$)은 행동의도에 대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가설6. '경로행동에 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경로행동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지각된 행동통제($p=.00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F=40.230$ 이고, $\hat{R}^2=.447$ 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행동통제($B=.641$)는 행동의도에 대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가설7. '경로행동에 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경로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지각된 행동통제($p=.00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F=29.042$ 이고, $\hat{R}^2=.303$ 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행동통제($B=.545$)는 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가설8. '경로행동의도는 경로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행동의도($p=.00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F=38.886$ 이고, $\hat{R}^2=.408$ 로 나타났으며, 행동의도($B=.660$)는 행동에 대한

표 4. 가설검증 결과

가설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종속변수	독립변수	B	표준오차	베타		
가설1	태도	(상수)	2.334	.289		8.081	.000
		개인적 상대이익	.006	.035	.011	.173	.863
		사회적 상대이익	.529	.061	.591	8.716	.000***
		복잡성	-.085	.044	-.122	-1.949	.053
가설2	주관적 규범	(상수)	1.144	.242		4.726	.000
		내적 규범적 신념	.220	.063	.223	3.497	.001**
		외적 규범적 신념	.533	.058	.585	9.177	.000***
가설3	지각된 행동통제	(상수)	2.122	.242		8.774	.000
		자기성취	.428	.073	.465	5.852	.000***
		촉진조건	.135	.065	.165	2.075	.039*
가설4	행동의도	(상수)	.911	.303		3.008	.003
		경로행동에 대한태도	.765	.066	.661	11.618	.000***
가설5	행동의도	(상수)	1.406	.268		5.252	.000
		주관적 규범	.671	.059	.651	11.305	.000***
가설6	행동의도	(상수)	1.604	.238		6.751	.000
		지각된 행동통제	.641	.054	.671	11.934	.000***
가설7	경로행동	(상수)	1.721	.274		6.278	.000
		지각된 행동통제	.545	.062	.554	8.788	.000***
가설8	경로행동	(상수)	1.194	.266		4.483	.000
		행동의도	.660	.060	.642	11.032	.000***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도출된 변수들이 예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본 이론을 근거한 경로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1][2][41]과 일치한 결과로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예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을 예측하고자 한 본 연구 모형설정이 타당함을 시사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4][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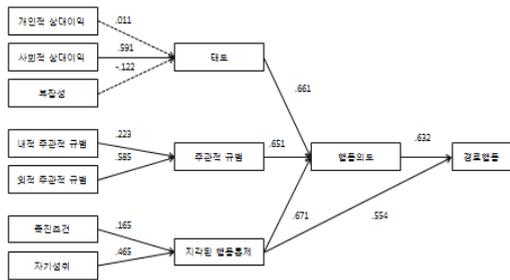


그림 2. 가설검증

IV. 결론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현출신념을 포함한 연구모형을 통하여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제시된 모든 요인이 예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함으로써 예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 증진을 위하여 활용 가능한 모형임을 재 입증 하였다. 또한 모든 요인들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함으로써 경로행동을 이해하는데 이론적 배경을 확고히 하였다. 회귀분석을 이용한 가설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보육교사의 현출신념이 경로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예비보육교사의 경로태도에 대한 태도적 신념의 경우 하위요인 중 개인적 상대이익 및 복잡성을 제외한 사회적 상대이익만이 태도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었다. 규범적 신념의 경우 하위요인 중 외적 규범적 신념이 주관적 규범에 유의미한 인과관

계가 있으며, 통제신념의 경우 하위요인인 자기성취와 촉진조건이 지각된 행동통제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선행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현출신념이 내생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1][2]결과와 일치한 결과로 예비보육교사는 경로행동이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경로효친사상이라는 미풍양속을 지키는 일이며, 노인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줄일 수 있다고 인지할수록 경로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준거인이 경로행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수록 경로행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강하고, 경로행동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과 행동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경로행동이 어렵지 않다고 여길수록 경로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로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예비보육교사의 개인적인 현출신념 향상을 위한 개입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예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경로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예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경로행동의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1][2][41]결과와 일치한 결과로 예비보육교사는 경로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경로행동에 대한 주변인의 기대가 크다고 인식하며, 경로행동 수행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행동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29][42]의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교사의 가르침은 전적으로 교사의 해석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되기에 가르침의 과정에서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마음을 심어줌으로써 학생들의 인간됨을 형성하게 해 준다는 주장을 근거하면 교사의 마음이 반영된 경로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를 높임으로써 경로행동의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예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의도가 경로행동에 영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태도,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를

매개하여 경로행동에 영향을 미침이 밝혀졌다. 또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를 매개하여 경로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한 가설이 모두 지지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들[1][2][4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결과로 예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만을 강화하여도 경로행동 수행에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의 도덕적인 행위실천을 위해서는 실습과정을 통한 도덕적 습관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30-32]의 결과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교사의 내면 발달과 회복을 위해 교사는 자신에 대한 앎과 성찰의 과정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바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인성교육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인성교육 실행 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결과[32]에 비추어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면 교사 자신의 인성교육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는 지각된 행동통제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경로행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결과로 예비보육교사의 적극적인 경로행동은 정보제공을 통한 지각된 행동통제요인의 외생변수인 통제신념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아의 인성성교육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들의 교원교육을 선행하여[30] 지각된 행동통제의 현출신념인 자기성취 및 촉진조건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예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예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에 대한 자기성취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질적인 경로행동 방법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령 예비보육교사의 일반적인 행동수행에 대한 자신감 향상을 위하여 교육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기효능감 향상프로그램’을 경로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내용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거나 경로효친사상에 대한 기본지식, 노인들과 대화하는 방법, 노인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들에게 학습·훈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예비보육교사가 함께 경로행동에 대한 정보 및 의견을 공유한 후 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경로행동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접 교

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노인 및 경로효친사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감을 갖고 경로행동을 어렵지 않게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예비보육교사의 적극적인 경로행동 수행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경로행동은 힘들지 않게 적은 노력으로 수행 가능한 행동이고, 이를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도와야 한다. 가령 교사-유아-노인으로 삼위일체 팀을 구성하여 자원봉사활동, 실내놀이 활동, 야외 체험활동 등 다양한 동행프로그램이나 경로실천프로그램을 예비보육교사가 중심이 되어 운영한다면 예비보육교사는 물론 유아들은 노인들과 친숙해지며 향후 자연스럽게 경로행동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예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경로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로행동이 포함되는 경로효친사상에 대한 예비보육교사의 문제의식 및 실천적 접근이나 혹은 유아의 인성교육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아만을 학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예비보육교사의 관심을 노인으로까지 확장하여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경로행동을 통하여 보육교사로서의 인간적 자질을 함양함은 물론 유아교육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는 유아의 인성발달이라는 교육적 측면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인소외현상 감소라는 복지적 측면에 대한 개입대안으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예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증진을 위한 대학교육현장의 노력이 촉구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G시와 J도에 소재한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일부 예비보육교사만을 표본으로 하여 모든 예비보육교사의 경로행동의 영향요인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좀 더 다양한 지역에서 확보할 수 노력을 제안한다. 또한 계획된 행동이론의 선행요인 및 현출신념을 모형에 포함한 본 연구결과는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2]에 나타난 현출신념 하위요인의 영향력이 다소 상이하여 이를 분석·규명하는 연구가 이어질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고은교,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아동의 경로행동에 관한 기술적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2] 고은교, 최태은,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성인의 경로행동 연구," 남부대학교 논문집, 제11권, pp.15-26, 2011.
- [3] 교육과학기술부, *개정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09-41호*, 교육과학기술부, 2009.
- [4] M. W. Berkowitz and J. H. Grych, "Fostering goodness: Teaching parents to facilitate children'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Moral Education*, Vol.27, No.3, pp.371-391, 1998.
- [5] 서유현, *내 아이의 미래가 달라지는 엄마표 뇌교육*, 아이트리, 2010.
- [6] 최인수, *창의성의 발견*, 서울: 샘앤파커스, 2011.
- [7] 박현진, 김숙자, "유아 인성교육 방향 모색을 위한 선행연구 고찰," *아동교육*, 제21권, 제2호, pp.5-26, 2012.
- [8] 윤영, *교사와 학부모의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일치도 및 효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9] 구분만, "인격주의 인성교육의 실천 방향," *종교교육연구*, 제49권, pp.23-49, 2015.
- [10] 도승이, "사회정서학습 측면에서 인성교육과 인성의 측정," *교육심리연구*, 제29권, 제4호, pp.729-735, 2015.
- [11] 이민영, "한국적 효사상의 발달과정 연구 : 가족 및 노인복지에 대한 함의," *이화사회복지연구*, 제9권, pp.65-84, 2003.
- [12] 박영숙, 박홍재, "효복지 개념의 정립과 그 시사점," *한구효학회*, 제19권, pp.89-114, 2014.
- [13] 한정란, "중·고등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미래교육연구*, 제17권, 제2호, pp.175-200, 2002.
- [14] 김형수, 김신향,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의 지역적 편차와 요인에 관한 연구-16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pp.215-224, 2015.
- [15] D. D. McLean, A. R. Hurd, and N. B. Rogers, *Kraus's Recreation and Leisure in Modern Society(8th ed)*, Sudbury: Jones and Bartlett Publishers, 2008.
- [16] 이광숙, 최균, "후기고령노인의 자살시도 경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7호, pp.224-254, 2015.
- [17] 고태규, *복지레저서비스론*, 경기: 집문당, 2009.
- [18] 김형수, 허평화, "노인자살 예방전략에 관한 모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3호, pp.309-317, 2011.
- [19] Lickona, *Educating for character, A comprehensive approach. In A. Molnar(Ed.). The construction of children's character*,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 [20] Klausmeir and Ripple, *Learning and human abilities*, New York: Harper & Row, 1971.
- [21] 한정란, "세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23권, pp.157-177, 2004.
- [22] L. S. Vygotsky,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iligical process(ed. by M. Cole, J. Scribner, V John-Steiner, and E. Souberma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 [23] K. Poter and N. O'Conner, "Changing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to old people," *Educational Gerontology*, Vol.3, pp.139-148, 1978.
- [24] Mc Guire,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in Lindzey Gardner & Elliot Aronson(eds), Thr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3rd ed)*, Ravdom House, 1985.
- [25] Durand and Klemmack, "Cognitive Differentiation and the attitudes of Older Persons," *Research on aging*, Vol.3, pp.333-344, 1981.
- [26] 배한동, 이애란, "비고츠키의 관점에서 본 부적응아 인성 교육 방안," *윤리교육연구*, 제17권, pp.243-266, 2008.

[27] 윤영동, “사회구성주의의 관점에서 본 내러티브와 아동의 인성교육,” 초등도덕교육, 제39권, pp.139-168, 2012.

[28] 김국현,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 변화와 교사교육의 개선,” 교원교육, 제29권, 제1호, pp.133-150, 2013.

[29] 금교영, “인격전형과 인성교육 연구: 인격전형의 인성교육 모델효과,” 동서철학연구, 제72권, pp.439-461, 2014.

[30] 서정화,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의 과제,” 한국교원교육연구, 제32권, 제3호, pp.387-404, 2015.

[31] 정윤경,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의 인성교육,”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20권, 제2호, pp.77-104, 2015.

[32] 최예솔, 이하영, 진영은, “인성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및 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6권, 제6호, pp.489-517, 2016.

[34] 김명소, 김금미, 한영석, “남성의 양성평등행동에 대한 합리적 행위이론 및 계획된 행동이론의 적용: 도덕적 책무의 역할 탐색,” 한국심리학회지여성, 제9권, 제1호, pp.1-21, 2004.

[35] 박진경, “여가행동을 예측하는 모형 탐색:합리적 행위이론과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하여,” 대한관광경영학회, 제26권, 제4호, pp.237-255, 2011.

[36] Ajzen, *Attitude, personality and behavior*.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1988.

[37] Ajze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50, No.2, pp.179-211, 1991.

[38] 박희서, 김은희, “계획행동이론에 근거한 쓰레기 감량형태의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1호, pp.1-17, 2004.

[39] 김은경, “조부모 관련 변인이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제23권, 제3호, pp.68-74, 2003.

[40] 임미혜, *성인진입기 손자녀-조부모 유대와 부모-조부모 관계질, 접촉, 가치유사성과의 관계*:

부계, 모계와 손자녀 성에 따른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41] 정민숙, 고은교,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한 고등학생의 경로행동 예측,” 학교사회복지, 제20권, pp.55-76, 2011.

[42] 박종덕, “인성교육과 교사의 전문성: 초등교사의 역할에 주는 시사,” 초등교육연구, 제20권, 제3호, pp.107-127, 2007.

[43] L. M. Wankel, W. K. Mummery, T. Stephans, and C. L. Craig, “Prediction of Physical Activity Intention From Social Psychological Variables: Results From the Campbell’s Survey of well-being,”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Vol.16, pp.56-69, 1994.

저 자 소 개

고 은 교(Eun-kyo Ko)

정회원



- 1982년 2월 : 조선대학교 음악교육과(교육학사)
- 2006년 2월 :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석사)
- 2009년 9월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가족복지

신 수 경(Su-kyung Shin)

정회원



- 2004년 8월 : 전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8년 2월 : 전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남부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유아놀이, 교사교육, 유아전일발달